

기초단체장 광주 1명·전남 3명...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

광주 5개 구청장·시의원 22명·구의원 49명 등 76명 대상
전남은 기초단체장 17명·도의원 52명·기초의원 196명
정치신인·여성 정치인 가점 고려하면 20%가 공천 탈락

민주당 내년 지방선거 현역 평가 착수

대통령 후보 경선 등 대선 이슈에 머물렀던 지역 정치권과 관가의 관심이 지방선거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와 전남을 텃밭으로 둔 더불어민주당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에 본격 착수하면서다. 특히 이번 평가는 지난 2017년 당시 평가 때보다 하위 20%에 대한 페널티를 대폭 강화하면서, 평가 결과 하위 20% 대상자에 대해선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18일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따르면 광주시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평가대상은 민주당 소속 5개 구청장과 시의원 22명, 구의원 49명이다. 이 가운데 구청장 5명 중 1명, 시의원은 4명, 구의원은 동구와 서구 1명씩, 북구와 광산구, 남구 3명씩이 페널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당 평가 대상은 기초단체장 17명, 도의원 52명, 기초의원 196명 등 모두 265명의 선출직 공직자다. 기초단체장 평가는 무소속 단체장 지역인 고흥·장흥·광양과 3선 제한에 해당되는 담양·진도를 제외하고 시장·군수 17명이 대상이다. 이 경우, 평가 세칙에 따라 하위 20%(소수점 이하 버림) 범위에는 3명이 포함된다.

17명의 현역 가운데 3명이 하위 20%에 포함돼, 공천 심사에서 본인이 얻은 점수의 20%, 경선에서 얻은 득표의 20%를 감산 받는다. 민주당이 4년 전 평가에서는 하위 20%에 대해 '공천 심사 시 10%, 경선 시 10% 감산'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페널티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평가 대상이 52명인 민주당 도의

원의 경우 10명이 하위 20%에 들게 된다. 민주당 기초의원 196명 중에선 39명의 시군 의원이 하위 20%에 포함돼 물갈이 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하위 20%에 들 때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지는 셈"이라며 "정치신인, 여성·장애인 가점을 고려하면 경쟁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다. 평가 결과가 셀 경우, 상대 후보로부터 '무능한 후보'로 낙인찍히게 돼 경선은 물론 본선에 서도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평가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별로 구분해 이뤄진다. 총점 1000점 만점은 동일하나, 단체장과 지부위원에 대한 평가 기준과 반영비율은 다르다. 단체장은 도덕성 및 윤리역량 17%, 리더십역량 19%, 공약 적합성 및 이행 평가 20%, 직무활동 31%, 자치분권활동 13%다. 지방의원 평가 기준과 반영비율 도덕성 18%, 공약 적합성 및 이행 평가 16%, 의정활동 41%, 지역활동 25%이다.

당 징계 및 포상은 최종 점수에 감점과 가점으로 중복으로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당원자격정지는 총점수 1000점의 30점을 감산하고, 당직자격정지는 10점을 감산한다. 경고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선 10점을 감산한다. 반대로 당대표 1급·2급 포상은 총점수 100점의 10점을 가점한다.

단체장 평가는 도덕성 및 윤리 역량에서 갈릴 가능성이 있다. 단체장 도덕성 및 윤리역량 평가는 개인 및 가족윤리, 기관 청렴도, 부패방지 노력이 평가항목인데, 이때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인 부동산 투기 등 '대 비리' 해당 여부,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결과 등이 반영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안센 접종자 부스터샷 계획 조속히 수립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안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접종(부스터샷)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런 지시를 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안센 백신의 효과가 빠르게 사라지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자문기구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RBAC)는 안센 백신의 기능이 크게 떨어졌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안센 접종자에 대한 부스터샷을 승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해당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안센 백신을 맞은 제대 군인 62만명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 예방효과

가 올해 3월에는 88%였다가 5개월이 지난 8월에는 3%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재택치료가 일반화될 때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이송·병원 연계·통원치료 방안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대선 양자대결, 윤석열 37.1%·이재명 35.4%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홍준표와 대결도 오차범위 접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선 가상 양자대결에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에게 오차범위 내에서 밀리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18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3000명을 대상으로 '가상 양자대결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이 37.1%로 35.4%의 지지율을 보인 이 후보를 오차범위(±3.1%포인트) 내에서 앞섰다.

지난주에 비해 이 후보가 0.4%포인트 하락했고, 윤 전 총장은 3.9%포인트 상승했다.

이 후보와 홍 의원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이 후보는 34.6%, 홍 의원은 35.9%를 각각 기록했다. 격차는 1.3%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였다. 이 후보는

지난주보다 0.6%포인트 하락한 반면, 홍 의원은 2.9%포인트 상승했다. 이 후보의 하락세를 두고 대장동 의혹 및 민주당 경선 후유증 여파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을 포함한 다자 가상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이 32.9%로 이 후보(32.0%)를 근소하게 앞서면서 초박빙의 접전을 벌였다. 안 대표는 3.5%였다.

윤 전 총장 대신 홍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로 가정했을 경우에는 이 후보가 31.5%의 지지율로 홍 의원(27.5%)을 앞섰다. 심 후보는 3.9%를 기록했다.

법 보수권 적합도에서는 윤 전 총장 29.1%, 홍 의원 28.5%, 유승민 11.7%, 원희룡 4.8%, 안 대표 3.4% 등으로 조사됐다. 윤 전 총장과 홍 의원 모두 지난주보다 각각 3.6%포인트, 1.0%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전남도, 제28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무산

정부, UAE에 개최지 양보 결정

김영록 지사 "차기대회 유치 총력"

전남도가 힘써온 제28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가 정부의 개최지 양보 결정에 따라 무산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8일 "정부가 제28회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2023년 개최) 개최를 아랍에미리트(UAE)에 양보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제33회 총회 유치를 위해 역량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정부의 COP28 유치 양보 발표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COP33 유치 결정을 밝힌 만큼, COP33 유치로 전환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할 추진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위원회와 협의해 COP33 유치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실천 위원회로의 기능 전환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2028년 개최 예정인 COP33 유치를 위해 글로벌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지구로 거듭나기 위해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을 기후변화 대응 선도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원기관 설립 등을 담은 '기후변화대응 선도지구 특별법' 제정과 '탄소중립실증 산업단지' 조성도 건의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13년간 COP28 유치를 위한 전남도의 염원과 준비사항을 고려해 COP33 유치도시를 남해안 남중권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면서 부족한 컨벤션, 숙박시설을 보완하는 등 COP33을 유치하기 위해 도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곡성군

아이에게 선물하는 특별한 하루

어린이 대축제

제21회 곡성심형

2021.10.29. - 31. 일
곡성심진강기차마을

YouTube 곡성어린이대축제